

기지촌 여성들과 아이들의 건강한 삶

새움터

□ 펴낸날 : 2000년 4월 28일

□ 전 화 : 0351) 867-4655, 3031(팩스)

□ 통 신 : SWOOM (천, 나우) □ 이메일 : SWOOM@chollian.net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4동 541-39 11/4 3층 (우) 483-034

꽃샘바람

공부방 2학년 강OO

꽃샘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스쳐 가면

얼굴이 파래진다

그러면 우리 얼굴이 꼭 고드름 같다.

우리 얼굴을 보면

고드름이 생각난다.



글 흐름

1. 여는 글
2. 기지촌 여성 살인사건 관련 성명서
3. 기지촌 여성들의 죽음
4. 새움터 소식
5. 아이들의 글모음
6. 새움터에 도착한 편지
7. 도움주신 분들
8. 새움터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새움터를 지키는 사람들

운영위원장 · 윤혜경 / 부운영위원장 · 홍춘희 / 운영위원 · 박진아 정선영 정유진 정희진 조은주 차은영
 및 새움터 실무자 / 고문 · 김연자 문형선 신혜수 안일순 이선희 장필화 / 대표 · 김현선 / 동두천대표 ·
 강옥경 / 상담소 · 정강실 / 직업재활센터 · 김성희 · 윤시로 / 사무국 · 김주영 /

여느그

오늘은 비가 옵니다.

황사와 가뭄, 그리고 산불 소식만 계속되다가, 모처럼의 봄비에 옷자락을 적셔봅니다. 지난 두 달 동안은 이태원과 의정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때문에 모두들 봄이 오는 줄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사건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언니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흐르지만, 살아 계신 언니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니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올바른 것인지 되묻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잣대로 언니들의 문제를 재단하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언니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항상 예민해져야 하니까요.

우리 언니들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까요? 함께 모여 항상 웃고 토닥거리며 살아가는 새움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헛된 상상일까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언니들의 희망을 생각해봅니다. 그 누구의 강요도 편견도 무시도 없는,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봅니다.

아직은 작고 여리지만, 언젠가는 푸르른 나무로 자라날 어린 새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싹을 비추는 따뜻한 봄날 햇볕이 되었으면 합니다.